

# 아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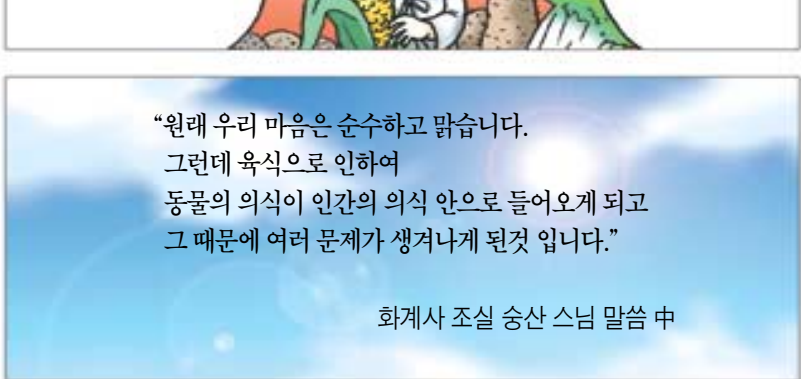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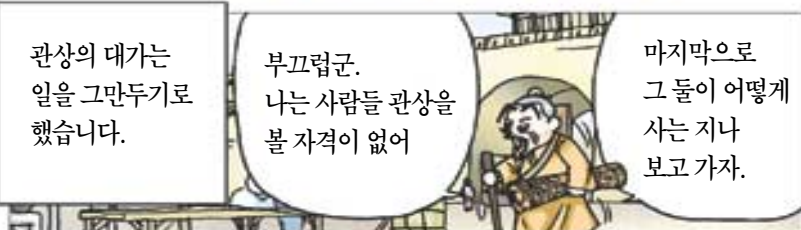
에서 건진 지혜 (제45화)



## “속식을 하지 말라-②”

< 출전 : 법구비유경 권 제1:자인품:4-581중 >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남을 돕는 일

## 드러내지 않는 따뜻함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추워지는 요즘, 선재는 훈훈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전철역에서 노인이 발을 헛디뎠다. 노인을 승강장 위로 밀어올리려던 청년은 열차가 역에 들어서자 선로 옆 배수구로 몸을 피해 두 사람 다 무사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선재도 가끔씩 듣는 이야기와 별다르지 않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다. 그 청년은 경찰에서 “나 아닌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는 취재 요청이나 감사 전화까지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선재는 이 청년이야말로 남을 돕는 일이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도우면서 무슨 희망이나 값을 바라지 말라는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유명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오른손의 선행을 그 오른손 자신도 몰라야 한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수보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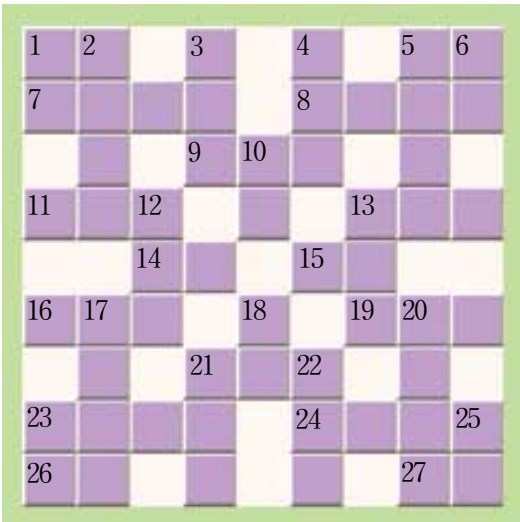
만약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아복다라삼 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도 제도한 적이 없다.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아, 만약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이 있으면 실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리라.”

행어 내가 남을 도운 사실을 알면 아예 남들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리라고 가르친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든지 조그마한 보시를 하고라도 중상심(增上心)으로 널리 일체중생을 위하는 가장 수승한 선심을 내어, 얻은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할 줄 알면, 그 이익이 다할 때가 없느니라.” <방등경>의 말씀이다.

“나 아닌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은 하기 쉽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웠다. 그저 당연하기만 한 상식이 화제가 되는 현실, 가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다.

■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석실)

## 상식퍼즐



가로

1. 아주 뛰어난 맛 5. 불성, 깨우쳐 반성함 7. 늘 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은 8. 꼬불꼬불한 양의 장자 9.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수행법 11. 참된 법신 13. 다섯 가지 색의 실 14. 속미음, 한복판 15. 청하여 대답함 16. 합정을 하기 위한 모임 19. 모인, 법회를 마지며 부르는 노래 21. 불사의 화향 때 공덕을 은 중생에게 베푸는 뜻을 담은 기원문 23. 삼일 간 마음을 뒤엎은 시간의 수행을 의미 24. 더할 나위 없는 정성 26. 매우 비듬 27. 금전을 꾸어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금전.

< 447호 '상식퍼즐' 정답 >



세로

1. 한 부분 2. 경전 가운데 불가의한 일을 말한 부분 3. 경전이 많고 좋은 성과를 많이 낸 불교의 한 분파 4. 남자 스님 5. 모양과 색이 각각 다름 6. 자라남 10. 깨달아 눈을 뜨는 것 12. 불법을 수호하는 화엄신중을 모신 단 13. 강원도 평창에 있는 산으로 월정사 상원사 등이 있다 17. 큰 바다에 던져진 한 잎의 종잡이란 뜻으로 매우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을 비유 18. 맑은 향기 20. 만년 사람은 반드시 이별한다 21. 서산대사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노래로, 불교의 이치와 인간의 무상함을 쉽게 전달하며 선행을 권하는 내용 22. 문을 지키는 사람 23. 법신, 보신, 응신 등 법신을 셋으로 나누어 부르는 말 25.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

#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 사용처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물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 사용후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물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개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액격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양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당신의 힘이 될것입니다.

제조원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ll.org 고객센터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김도현